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4. 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美 국무부, 스리랑카 여행단계 「경계강화」로 격상

- 4.21 美 국무부는 “테러단체가 스리랑카에서 다시 공격을 모의할 수 있으며, 이들은 예고없이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”며 스리랑카에 대한 여행단계*를 2단계 ‘경계강화’(Exercise Increased Caution)로 발표

* 일반적 주의(1단계), 경계강화(2단계), 여행재고(3단계), 여행금지(4단계)

○ 美, 마약성 진통제 ‘펜타닐’ 「대량살상무기」 지정 검토

- CNN은 美 국토안보부가 다량의 펜타닐(Fentanyl)이 식수원·공기중에 살포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, 펜타닐을 ‘대량살상무기’(WMD)로 지정하여 유통·판매 행위를 국가 안보위협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

* '02.10월 모스크바극장 인질테러시 러시아군이 펜타닐 혼합가스로 체첸군 진압

○ 美, 동맹국의 지원 부족으로 시리아 철군 계획 차질 우려

- 4.23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美 행정부가 시리아에서 ISIS부활을 막기 위해 최소 21개 동맹국에게 병력 및 병참 지원을 요청했지만, 절반은 거절하고 나머지 국가도 명목상의 지원에만 동의하여 철군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

* 現 시리아 주둔 미군 2천여명 中 향후 수개월內 1천여명 병력 철수계획

유럽

○ 네덜란드, 자국 출신 지하디스트 분석 결과 발표

- 4.19 현지언론은 “네덜란드에 살다가 내전중인 시리아나 이라크로 떠난 ‘지하디스트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나 가난·저학력·범죄·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”고 경찰보고서*를 인용하여 보도

* 네덜란드 경찰정보 관련 기구가 자국 출신 지하디스트 300여명을 분석해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스리랑카, 연쇄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및 비상사태 선포

- 스리랑카 경찰은 4.21 폭탄테러로 253명이 사망(485명부상)하였으며, 테러 배후로 현지 급진 이슬람조직인 NTJ (National Thowheed Jamath)를 지목하고 용의자 70여명을 체포했다고 발표, 대통령은 자정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

○ 아프간 정부, 탈레반과 평화협상에 대규모 협상단 파견

- 4.18 워싱턴포스트는 아프간 정부가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사흘간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 대규모 협상단 25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

○ 우리 외교부, 스리랑카 여행경보 2단계 「여행자제」로 격상

- 외교부는 4.21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및 인근지역의 교회와 호텔에서 연쇄폭발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, 4.23부로 스리랑카의 여행경보*를 ‘여행유의’(1단계)에서 ‘여행자제’(2단계)로 격상하고 여행자제 및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



* 여행유의(1단계) ↔ 여행자제(2단계) ↔ 철수권고(3단계) ↔ 여행금지(4단계)

중 동

○ 이라크, 치안공백 불안감으로 총기구매 증가

- 4.21 AFP 통신은 이라크 모술에 ISIS의 잔여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, 치안공백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총기를 구매해 소지하는 실정이라고 보도

* 모술은 이라크군이 2017년 중순 탈환하기까지 ISIS가 3년 동안 지배

아프간 카불市 유권자등록센터 폭탄테러

- '18. 4. 22 아프간 수도 카불市 소재 유권자등록센터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, 60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
 - 당시 센터에서는 10. 20 예정된 총선을 위한 유권자 확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,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겨냥하여 건물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
 - 목격자들은 도시 전역에 큰 폭발음과 함께 차량 수대가 파손되었으며, 인근 건물의 창문이 깨지는 등 충격이 상당했다고 진술
- 아프간 당국은 총선을 방해하려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의 소행으로 판단, 「아슈라프 가니」 대통령은 “테러 공격이 국민의 총선 참여를 막지는 못할 것”이라고 성명 발표
 - * ISIS는 이슬람신정국가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총선을 반대
- 테러 직후 ISIS는 자체 선전매체인 「아마크」를 통해 “이번 테러는 시아파 변절자들을 겨냥한 것”이라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
테러 상식

< 아마크(Amaq) 통신 >

- (개 요) 아랍어로 ‘깊은 곳’이라는 뜻으로 전장의 중심에서 보도한다는 것을 의미, 이라크·시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SIS의 사실상 선전매체
- (등장시기) '14. 8월 ISIS가 시리아 코바니를 점령할 무렵 등장
- (활동지역) 이라크, 시리아, 예멘, 아프간, 파키스탄, 시나이반도, 나이지리아 등
- (주요활동) ISIS의 모든 테러행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ISIS가 공식적으로 테러 소행을 자처하기 전에 먼저 발표, ISIS시점에서 각종 뉴스를 전달하며 영어판과 아랍어판을 기본으로 터키어·러시아어·독일어·프랑스어·페르시아어 등을 지원

